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0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9월 5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코스모축매 사장 아무 능력없으면 비켜라

임금체불, 임단협 파행

벌써 추석이 코 앞이다. 많은 사업장이 2016년 임단협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몇 사업장은 여전히 임단협이 막혀있다.

그 중 코스모축매가 심상치 않다.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기대감은 커녕 임금체불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허수아비 사장은 필요없다

코스모축매지회가 2016년 임단협이 잘 풀리지 않고 그 와중에 임금체불까지 3개월째다. 작년 연차보상비도 한푼 받지 못했고, 5월부터 7월까지 월급도 전부 밀렸다. 8월 월급도 그나마 절반만 지급됐다. 2015년에 노조를 설립할 당시에도 임금체불이 문제였는데,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경영진이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다. 사장은 그 혼한 립서비스 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

결해보도록 노력하겠단 소리도 없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장과 얘기할 필요가 없다. 권한도 능력도 없는 허수아비 사장은 필요없다.

코스모그룹 회장 나와라!

지부는 코스모축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더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사장과의 면담에서 해결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더는 코스모축매 경영진과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코스모그룹 허경수 회장을 만나러 갈 것이다.

이번 주 목요일 현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 그룹 본사를 상대로한 서울 상경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 공장에서 임금체불이 3개월 넘도록 계속되는데 허경수 회장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분노를 직접 보여줄 것이다.

지부 수석부지부장 법정 구속

성세경 지부 수석부지부장 동지가 지난달 31일 법정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성 수석은 피엘에이, 한국타이어, 유성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피엘에이지회 김국배 지회장, 김성훈 사무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8명의 동지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엘에이는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던 중이었다. 교섭자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조합원들의 분노를 샀다. 많은 조합원들이 공장을 떠나고 정리해고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정문 앞 선전전을 하는 모습을 불법 채증하는 등 도발하며 충돌을 일으켰다. 관리직 200여명이 몰려나와 집단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사측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노동자들만 범법자를 만들었다.

* 이번주 일정 *

■ 열사 양재동 농성

일시 : 9/6(화) ~ 7(수)
장소 : 양재동 현대차본사

■ 코스모축매 결의대회

일시 : 9/8(목) 15:00
장소 : 코스모축매